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2013년 재해대비 농업기반사업 예산 8.3% 증액
갯벌 천일염, 세계 명품 소금으로 육성

거시경제 동향

2012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기획 정보

주요국의 소농 개념과 특징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보급률(2010년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2013년 재해대비 농업기반사업 예산 8.3% 증액

※ 본 자료는 10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3년 재해대비 농업기반사업 예산 8.3% 증액」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수리시설 개보수**: 노후 또는 파손,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대응과 영농편의 제공
- **배수개선**: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 방지와 안정영농 도모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에서 필요한 용수(농업, 생활, 환경용수 등)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전영농기반 구축과 농어촌 환경개선 도모

○ (추진 현황)

- 수리시설 개보수 4,330지구로 '12년까지 총 목표의 56.3% 달성 계획. 배수개선 및 다목적 용수개발은 각각 232.5천 ha('12년까지 67.8% 달성), 다목적 용수개발 107.5천 ha('12년까지 59.1% 달성)임.

<농업기반시설 재해대비 사업 추진 현황>

사 업 명	총계획	'11까지		'12계획		'13이후
			%		%	
○수리시설 개보수	4,330(지구)	2,301	53.1	139(390)	56.3	1,890
○배수개선	232.5(천ha)	153.4	66.0	4.2	67.8	74.9
○다목적 용수개발	107.5(천ha)	61.4	57.1	2.1	59.1	44.0

□ 주요 내용

- 올해 충남, 전남북 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연이은 태풍에 따른 농경지 침수 및 수리시설 피해 등 **자연 재해가 잦아짐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투자 확대 방안 마련**

-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하고 노후된 시설이 많아** 가뭄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 수리안전담울(10년 한발빈도): '90) 29.0% → '00) 36.6 → '05) 43.8 → '10) 52.9

※ 노후 수리시설 현황: 69천 개소 중 30년 이상 경과 39천 개소(56.9%)

※ 최근 5년간('07~'11) 수리시설피해 및 복구지원금액: 1,631억 원(2,726건)

※ '12년 수리시설피해 및 복구지원금액('12.10현재): 956억 원(412건)

-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사업인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에 대한 **'13년 예산 규모를 '12년보다 8.3% 늘어난 9,000억 원으로 편성**

- 노후된 저수지 및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13.5% 증가한 4,200억 원으로 편성** 하여 재해사전대비와 시설안전기능 강화

<재해대비 기반시설 투자 계획(안)>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12대비 증감	%
합 계	8,300	9,000	700	8.3
○ 수리시설개보수	3,700	4,200	500	13.5
○ 배수개선	2,500	2,600	100	4.0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2,100	2,200	100	4.8

※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 및 연도별 수리시설 피해 및 복구액 현황은 부록 참조

부록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50년 이상 (‘61년 이전)		30~50년 미만 (‘62~’81)		30년 미만 (‘82년 이후)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계	69,313	100	18,107	26.1	21,364	30.8	29,842	43.1
저수지	17,531	100	11,766	67.1	4,882	27.8	883	5.1
양·배수장	7,529	100	313	4.2	2,470	32.8	4,746	63.0
취입보	18,116	100	5,877	32.4	8,927	49.3	3,312	18.3
집수암거	2,721	100	132	4.9	2,221	81.6	368	13.5
관정	23,416	100	19	0.1	2,864	12.2	20,533	87.7

<연도별 수리시설 피해 및 복구액>

단위: 개소, 억 원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피해	물량	7,151	3,858	1,967	848	2,138	320	114	724	428	1,140
	금액	4,902	3,245	866	424	1,309	148	22	231	155	468
지원 복구	물량	6,593	3,715	1,414	668	1,251	136	3	229	176	496
	금액	6,816	4,405	980	506	2,079	157	6	291	264	913

주요 농정 이슈_2

갯벌 천일염, 세계 명품 소금으로 육성

※ 본 자료는 10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갯벌 천일염, 세계 명품 소금으로 육성」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원인 우리 **갯벌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3년 천일염산업육성 예산 확대 지원
- 2009년 염전시설 현대화, 산지종합처리장 지원 등 33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폐슬레이트 처리사업, 염전 바닥재개선사업 60억 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이력관리제, 비축사업 등 3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42억 원 지원**

□ 주요 내용

1) 천일염 산업 기조 인프라 확충

○ 염전 시설 현대화

- 해주(함수저장창고), 소금창고의 슬레이트 시설물을 **친환경 자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용자 예산 20억 원 지원
 - 해주: 180개소×9백만 원/개소당×70%(용자)=1,134백만 원
 - 소금창고: 10개소×120백만 원/개소당×70%(용자)=826백만 원
 - ※ 소금산업진흥법 시행('12.11.23)후 2년 6개월 이내 염전내 슬레이트 창고 해주를 전면개선헌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함.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지속적 지원

- 현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천일염의 품질 향상 및 수집·저장·선별·유통 시스템을 규모화·집단지화·현대화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산지종합처리장 지속적 지원

2) 천일염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천일염 유통구조의 투명성 제고

- (**천일염 이력관리제 사업 추진**) 염전에서 염 검사 이후 출하 시 위조가 어려운 라벨 등을 부착하여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천일염 포대에 부착된 라벨(태그)에서 **이력정보(생산지역, 생산자, 생산년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천일염 생산단계 이력관리사업 본격 시행
 - ※ 천일염이력관리제 사업 예산지원 15억 원
- (**천일염 비축사업 추진**) 김장철 등 천일염 집중 소비시기에는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 시기는 값이 폭락하고 있으나, 완충장치가 없어서, 천일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2013년부터 비축사업 추진(20억 원)**

○ 천일염 품질·안전관리 강화

- 염전 창고시설의 슬레이트 및 주변에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20억 원)
- 천일염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천일염 품질관리 예산 신규 편성(3.5억 원)

<2013년 천일염산업육성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12년 예산 (A)	'13년 기재부 반영(B)	증감 (B-A)	비 고
□ 천일염산업육성	10,000	14,216	4,216	42% 증액
○ 농특회계(식품산업진흥과 편성)	10,000	12,216	2,216	
- 염전생산시설개선(용자)	1,190	1,960	770	
- 산지종합처리장 건립(보조)	2,700	2,160	△540	
- 천일염 포장재 지원(보조)	200	200	-	
- 염전 바닥재 개선(보조)	4,050	4,050	-	
- 폐슬레이트처리 지원(보조)	1,440	2,000	560	
- 소금연구센터타당성조사(보조)	120	-	-	
- 이력관리제사업(보조)	300	1,500	1,200	
- 천일염 품질관리지원(보조)	-	346	346	
○ 수발기금(수산정책과 편성)		2,000	2,000	
- 천일염 비축사업	-	2,000	2,000	

※ 본 자료는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에서 발표한 「2012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로 **정부가 금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3.3%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외국 주요 투자은행(IB)**들은 금년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잇달아 하향 조정**

<주요 기관별 2012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단위: %

정부기관		민간기관				국제기구/해외IB	
기획재정부	3.3	삼성경제연	3.6	금융연	3.4	IMF	2.7
한국은행	3.0	LG경제연	2.5	한경연	2.6	OECD	3.3
KDI	2.5	현대경제연	2.5	산업연	3.2	ADB	3.4

주: 성장률 전망치는 최근 각 기관에서 발표한 하향 조정된 수치임.

□ 기관별 2012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1. 정부 및 국책 연구기관

○ 정부, 2012년 경제성장률 3.3% 전망

- 2011년 12월,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 경제 성장률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3.7%로 전망
- 2012년 6월에는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하향 조정
- 한편 정부는 올해 3.3% 성장에 이어 2013년 4.0%, 2014년 4.3%, 2015년 4.5%, 2016년 4.5% 등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봄('12.9).

○ 한국은행, 2012년 경제성장률 3.0% → 2.4%로 하향 전망

- 한국은행은 2011년 12월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발표한 뒤 지난 4월 3.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
 - ※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 유로지역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름.
- 2012년 7월 들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0.5%p 하향 조정한 데 이어 10월에 2.4%로 또 한 차례 대폭 하향
 - ※ '13년 성장률 전망치도 0.6%포인트 내린 3.2%로 대폭 하향 조정

○ KDI,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6%→2.5%로 대폭 하향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저성장 흐름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2012년도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종전(5.20) 3.6%에서 2.5%로 1.1%p나 대폭 낮춤('12.9.17).
- ※ '13년 성장률도 종전 4.1% → 3.4%로 0.7%p 하향

2. 국내외 경제기관

○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 2% 중반 ~ 3% 중반 전망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발표한 3.2%에서 0.6% 포인트 내린 **2.6%로 하향 조정**('12.8.15)
- (**LG경제연구원**) 지난 2011년 12월,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전망한 데 이어 2012년 6월에는 세계 교역 위축에 따른 영향 등으로 전망치를 3.0%로 대폭 축소했으며, 9월에는 **2.5%로 추가 하향 조정**
- (**삼성경제연구소**) 2011년 말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로 3.6%를 제시('11.12)했으나 올해부터 전망 발표 잠정 중단
 - ※ 단, 두바이유 가격이 연평균 150달러를 지속할 시 국내 성장률은 1.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금융연구원**) 당초 정부·한국은행의 예상치와 동일했으나, 5월 내놓은 전망 보고서에서 전망치를 **3.4%로 하향 조정**('12.5.13)

- (산업연구원) 당초 3.7%로 전망(11.11)했으나, 이후 **3.2%로 하향조정**한 수정 전망치를 내놓음.

- (현대경제연구원) 당초 GDP 성장률을 4.0%로 전망했으나, 2012년 6월 들어 3.5%로 조정한 데 이어 8월에는 2.8%로, 10월 들어서는 **2.5%로 잇달아 추가 하향 조정**

○ 글로벌IB(외국계 투자은행), “올해 한국 성장률 2.9% 전망

-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노무라, JP모건 등 10개 주요 외국계 주요 IB들도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7%로 줄줄이 하향 조정(12.9.10)

<해외 IB 2012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12.8월 말 기준)>

단위: %			
UBS	도이치방크	BOA	바클레이즈
2.1	2.6	1.8	2.7
JP 모건	BNP파리바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2.5	2.5	2.8	2.6

출처: 국제금융센터(12.9)

3. 국내외 경제기관

○ IMF, 금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7%로 하향 조정

- 2012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3.5%로 전망한 이후, 6월 3.25%, 9월 3.0%, 10월 2.7%로 지속적인 하향 조정

○ OECD, 2012년도 한국경제성장률 3.3%로 하향 전망

- 2012년 4월 3.8%에서 3.5%로 낮춘 뒤 불과 한 달 만에 3.3%로 하향 조정(12.5.)

※ OECD는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 ADB, 한국 올해성장률 3.4% 하향 전망

- ADB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9%로 예측했으나 이번에 0.5% 포인트 하락한 3.4%로 하향 조정

기획 정보

주요국의 소농 개념과 특징

※ 본 자료는 주요국별 소농의 정의를 다양한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동향분석실에서 요약한 것임.

□ 개념적 정의

○ 소농(小農)을 표현할 때, Smallholder Farmer, Small-Scale Farm, Small Farm, Peasantry를 주로 사용

○ 소농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규모를 기준으로 **소규모소유자(Smallholder)로 정의**하지만, **가족, 생계, 부족한 자원, 낮은 임금, 낮은 투입물 또는 낮은 영농 기술력** 등으로 대체하여 언급할 수 있음.

- (Lipton) 가족농(2005)으로부터 노동과 자금의 상당부분이 농장에 투입되고, 이러한 **가족영농으로부터 운영되는 농가 단위**로 정의

- (World Bank's Rural Strategy(2003)) **소 자산으로 2ha이하의 경작지를 운영**하는 소규모소유자(Smallholder)

- (FAO) 상대적으로 동일 분야에서 다른 농부들보다 **한정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 (Narayanan and Gulati(2002))는 **가족이 주요 노동을 제공**하고 **농장이 소득의 원천**인 곳에서 상업적생산물 또는 보조생산물을 혼합하여 생산하거나 혹은 둘 중 하나만 생산하는 농민

□ 외국의 소농 개념과 정의

1) 미국

○ 소농은 **연간 총수입액 25만\$ 이하 가족농**

- 소농은 연간 총수입액(gross receipts) 기준으로 25만\$ 이하

- 일상 행해지는 노동과 관리가 생산자산을 보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농장주 자신 또는 농장주 가족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농장

<미국의 소농구분(연간 총수입액 기준)>

구 분		농업총조사	농업자원관리서베이
소농	영세농	MVS 1만\$ 이하	GCFI 1만\$ 이하
	소규모 상업농	MVS 1만\$~25만\$	GCFI 1만\$~25만\$
대농		MVS 25만\$~100만\$	GCFI 25만\$~100만\$
초대농		MVS 100만\$ 이상	GCFI 100만\$ 이상

주: MVS(Market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s Sold), GCFI(Gross Cash Farm Income)

2) EU

- 소농은 생산물의 대부분 **자가 소비 위주(시장참여 저조), 가족농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농가**

- 일반적으로 소농을 생계형(subsistence farms)과 준생계형(semi-subsistence farms)의 두 가지로 구분

- 소농은 **물리적 척도, 경제적 규모, 시장 참여도 등 3가지 기준 분류**

<EU 3대 소농 분류 기준에 따른 구분>

구 분		물리적 척도	경제적 규모	시장 참여도
소농	생계농	경지면적 5ha 미만	1ESU 미만	산출물의 50% 미만을 시장에 판매
	준생계농		1~8ESU미만	

주: 유럽규모단위(European Size Units: ESU), 1ESU = 1,200유로(1,400만 원)

3) 기타국

- 일본은 소농을 **"자급적 집약농업을 하는 농민"**으로 정의

- "오랜 세월에 걸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농지를 개량화하고, 그 토지에서 열심히 작물을 재배해서 얻어내는 적은 잉여생산을 이용해서 자손의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고, 그 농사법을 자손 대대로 이어온 사람들"

- 호주는 소농(Hobby farmer)을 **2ha미만의 영농규모 범주에 속하는 자영농**으로 정의

- 인도는 소농(small holder farmer)을 **20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

- 캐나다는 소농(Small Sized, family farms)을 **총 판매(Gross Sales)액 기준으로 \$100,000미만의 영역**에 속하는 농가로 정의

□ 국내의 소농 개념과 정의

- 소농(peasant)이란 **가족노동을 주로 하고 이렇게 획득한 생산물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구성체**를 이르며, 이러한 소농은 경영규모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영세하여 소규모의 경지를 소유하거나 차지하여 농사를 짓는다는 점에서 오늘날 기업농이나 집단농과는 구별되는 개념임(김종무, 1985, 이종안, 1976).

- 소농이란 소작농을 포함하는 가족농업으로서 peasant의 개념으로 사용됨. 또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소농구조란 80년대 중반 이후에 소농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의 소농구조를 의미하고 **기업농을 제외한 영세농, 소농, 중농, 대농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함(최석인, 2006, 정기환, 1993).

<영농형태별 규모별 농가분류>

구 분	소 농	중 농	대 농
경종농업	1ha 미만	1~2ha	2ha 이상
축산농가	법규제 미만, 양돈 200두, 한우·낙농 30두, 양계 5,000수 미만	신고대상, 양돈 200~1,000두, 한우·낙농 30~100두, 양계 5,000수 이상	허가대상, 양돈 1,000두 한우·낙농 100두이상
시설농업	시설면적 500평 미만	시설면적 500~1,500평	시설면적 1,500평 이상

자료: 정명채 외 (1997)

- 경작규모를 기준으로 **경작규모가 1ha 미만이면 소농**, 1~2ha 규모이면 중농, 2ha 이상이면 대농으로 정의함(이현목, 2005).
- 소농은 가족농의 전통적 개념으로서 **가족단위의 경영이며, 가족원의 노동력 공급에 의해 영위되어 세대적 계승에 기초**함. 따라서 소농은 경영단위(생산경제)인 동시에 가계단위 임. 최근 일반적인 규모적 측면에서 0.5ha 미만 농가는 영세농, 1ha 미만은 소농, 1~2ha 중농, 3ha 이상은 대농으로 구분함(김정호, 2007).

<참고문헌>

구자옥(2009), 한국 전통농업의 현대적 의의, 한국농업사학회, 농업사연구.
 김정호(2007), 농가의 경제사회적 성격변화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중무(1985), 소농경제의 사회 경제적 의미, 성균관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박재홍(2010),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
 소농의 직거래에 대한 연구(귀농자 사례와 소비자 설문 조사), 생태귀농학교
 쓰노 유킨도(2003), 소농 - 누가 지구를 지켜왔는가, 녹색평론사.
 이종안(1976), 소농경영에 관한 소고, 안성산업대학교(안성산업대학교).
 이현목 외(2005), 한국농업의 특수성과 중·소농 대책,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 정책연구소.
 정기환 (1993), 농가의 성격 변천에 관한 연구 : 산업화에 의한 가족농의 구조적 변화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명채 외(1997), 농업구조 개선과 중소농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370.
 조영수(2010),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정책, 농협경제연구소.
 최식인(2006), 경제성숙단계에서의 소농의 재인식,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 연구 제 12권 제1호 pp. 147-171.
 Big Farms, Small Farms(strategies in sustainable agriculture to fit all sizes),Hugh Maynard and Jacques Nault, Agr.(2005. 9)
 ETI smallholder guidelines(ETI REPORTS 2005), 16-17
 Small Farms : Current Status and Key Trends(Information Brief), OKSANA NAGAYETS
 Smallholder Farmers In India(Food Security and Agricultural Policy),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The Future of Small Farms for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Peter Hazell 외 3명,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10월 22일~26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내년 농수산물수급안정부문 예산안 25% 증액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이상기후 등으로 향후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불안 현상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3년 농수산물 수급안정 부문 예산안을 전년대비 25% 증액** 편성함. ▲ **농어업관측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3억 원 증액**하고 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쌀(국제관측) 등 5개 품목을 추가하여 관측대상 품목을 41→46개로 확대 ▲ 계약재배 예산을 전년대비 624억 원 증액 ▲ 농산물비축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865억 증액하여 품목별 비축물량 확대 및 신규 품목에 대한 비축물량 설정: 고추 (4→6만 톤), 마늘 (6→9만 톤), 수입콩 (253→309만 톤), 팔 (21→29만 톤), 배추가 신규 품목으로 사업에 추가 (1만1000톤) ▲ 수산물 비축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253억 증액하여 비축율을 소비량 기준 8천 톤 (소비량의 1%)→19천 톤(소비량의 2%)으로 확대하고 천일염 5천 톤을 사업 대상에 추가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56억 원 증액 하고 무·배추 출하조절 1개소를 신설

자료 : 농축유통신문(2012.10.25.)

□ “세계 곡물재고를 18.5% 예상…2008년 이후 최저”

- 랠프 기포드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 과장은 ‘세계 곡물시장 전망: 곡물 가격 변동의 시사점 및 식량 정책’ 국제심포지엄에서 **2012~2013년 세계 곡물 기말재고율을 18.5%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08년 국제곡물가격 급등 이후 최저 수준. 그에 따르면, 1) 2012~2013년 세계 주요 수출국의 밀 재고량은 최근 5년 만에 최저 수준. 2) 옥수수 생산량은 세계최대 생산국인 미국의 흉작으로 인해 전년 대비 13.4% 감소 전망. 3) 대두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생산량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전망되나 미국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총 생산량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중국의 대두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향후 대두 시장 안정성은 중국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

자료 : 농민신문(2012.10.24.)

□ 벼농사 용작...축산농가 '우폭풍'

- 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부산물인 벼짚·왕겨 등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수요는 늘어 산지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경영 악화 우려. 한우와 낙농가들이 조사료로 활용하는 생벼짚의 경우 지난해 곤포 사일리지 한톨 당 상차도 기준 4만7,000원 하던 것이 올해는 5만5,000원으로 17% 상승, 닭·오리 사육장 깔개용이나 돼지 분뇨 발효용으로 이용되는 왕겨값도 5t 한차 당 30만~35만 원으로 지난해(20만 원)보다 50~75% 폭등한 데다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 이처럼 벼짚과 왕겨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은 벼 재배면적 감소, 작황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수입 조사료값의 지속적인 상승,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정된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산 조사료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

자료 : 농민신문(2012.10.24)

□ 일본, 미 수입 쇠고기 월령제한 검토

- 일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쇠고기 월령제한을 현행 20개월 → 30개월로 완화. 내각부의 식품안전위원회 프리온전문조사위원회는 최근 소해면상뇌증(BSE) 대책에 대한 전면 검토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월령제한을 현행 20개월령 이하에서 30개월령 이하로 완화하는 안을 승인하면서 현행보다 위험이 매우 적고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정도라고 결론. 이 안을 정식으로 접수해 일반인으로부터 30일간 정식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후생노동성에 성령개정이나 검역소 통지 등을 통해 내년 봄까지 규제 완화할 방침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2.10.22)

□ 농식품부 · IFAD 식량안보 공동협력

- 농식품부, 10.18일 IFAD(국제농업개발기금)로마 본부에서 '개도국 농업 생산성 향상 현장교육사업' 약정 체결하여 식량안보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농업발전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한 것. 이번 사업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농업 기술 교육과 역량강화에 올해부터 4년간 총 20억 원 지원, ▲생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농장경영과 마케팅 교육 등 개도국 농업인들의 실질적 능력 배양에 중점을 뒀 사업 추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녹색혁명, 산림 녹화, 농촌종합개발 경험 등도 전수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2.10.24)

□ 50세까지 우계농업인 지원 가능

- 정부, 10.19일, '제10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현행 후계농어업 경영인에 지원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45세 → 50세로 완화, 임업 후계자도 50 → 55세로 조정.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도 본격화되고 있는 국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 지원 연령 조정 등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대폭 완화. 이번 결정으로 농어촌에 현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유입돼 농어촌 공동화 현상 예방 및 농어촌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2.10.22).

연구 지원 정보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보급률

※ 본 자료는 e-나라지표의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보급률」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념 정의

○ 정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04.3)에 따라 '05~'09까지 농촌지역 복지·교육·지역개발 등에 22.8조원 투입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관련사업 추진

- 농촌지역 생활인프라는 크게 수도보급률, 의료기관, 보육시설 측면으로 구분하여 파악

- 농어촌지역의 복지, 지역개발 및 생활여건에 대한 기초 자료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수립 시 활용

□ 현황 및 증감수

○ 농촌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01년 29.0% → '10년 56.1%로 증가 하였으나 도시지역 및 읍지역과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

- 상수도 보급률('10년): (시) 99.4%, (읍) 90.5%

※ 마을 상수도 급수인구는 제외한 수치임.

○ 농촌지역 의료기관수는 '01년 3,256개소 → '07년 6,857개소로 증가한 후, '10년에는 6,411개로 감소

○ 농촌지역의 보육시설은 '02년 3,155개소 → '10년 7,759개소로 증가 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면지역의 경우 보육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

<농촌지역 생활 인프라 보급률>

단위: %, 개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상수도보급률 (면지역)	29.0	31.1	33	35.2	37.4	40.7	45.3	47.7	51.2	56.1
의료기관수	3,256	3,483	5,712	4,270	4,462	6,600	6,857	4,641	4,776	6,411
(비율)	8.1	7.9	12.5	9	9	12.9	13	8.6	8.6	11.4
보육시설수	-	3,155	3,940	4,418	4,742	4,157	4,901	6,504	6,996	7,759
(비율)	-	14.2	16.4	16.4	16.7	14.2	15.9	19.4	19.7	20.4

주 1) 의료기관은 병원 및 의원을 포함.

2) 비율은 전체 기관·시설 중 농촌지역에 소재 기관·시설수 비율임.

3) 보육시설수는 2002년부터 농촌지역 구분 통계 생산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 (의료인프라)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39개 군지역에 응급의료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 기능 및 서비스 확충을 추진 중

- 노후 보건소·보건지소 등 신·증축 추진: ('04) 1,170개소 → ('10) 1,183개소

○ (보육인프라)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농산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계획: ('06) 377개소 → ('10) 551개소

○ (상수도인프라) '07년부터 면지역 326개소에 15,161억 원을 투자

- 상수도 보급률을 개선: ('05) 38% → ('14) 75%

* 매년 55개소에 1,500억 원 투자

- 소규모 자연마을(20~49호)에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농업용수검용 간이 상수도: 암반관정)을 확대하여 농업용수와 음용수로 함께 사용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계획: ('05) 5,097개소 → ('14) 7,751개소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